

'88年度 建設景氣動向

李 炳

〈大韓建設協會·調查部次長〉

1. '87年度 建設景氣動向

주지하는 바와같이 2000年代를 향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高度先進產業社會로의 발돋움을 위하여 모든政策 및 產業分野에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따라各企業은 有効競爭의 確保 즉, 企業規模의大小에 관계없이 市場原理를 기초로 공정한 競爭을 통하여 企業의 成長과 發展을 도모하고 있다.

즉 諸般企業環境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87년도 건설업은 어느 다른 產業分野보다 무척 어려움이 많았던 일년이라고 생각되는 한 해였다.

돌이켜보건데 60年代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착수된 이래 건설업은 지금까지 急速한 量的膨脹과 함께高度成長을 이루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한해의 우리 건설업계는 海外建設景氣의 급격한 退潮와 海外建設市場 環境의 악화로 기업의 採算性 低下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예년보다 약간 上廻하지만 한정된 國內工事量으로 여전히 受注의 어려움을 겪었던 해였다.

1987년도의 건설업의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建設業의 本質을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건설업은 社會間接資本施設과 工場設備等 實物資本 형성과정을 담당하는 서비스업이다.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서비스도 貯藏이 불가능함으로써 需要와 供給이一致하지 않으면 建設生產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建設業은 注文(契約)에 의해서 생산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

설사 建設能力과 技術力이 아무리 좋고 많아도 그 注文需要가 없으면 建設業은 生產活動을 할 수가 없다.

이와반대로 건설서비스 需要가 아무리 커도 건설서비스 供給ability이 없으면 역시 建設생산은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업의 실정은 건설서비스 供給分野에 있어서 建設생산활동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겠다.

近代的 기업형태로 건설업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의 직후인 50年 발생한 6·25動亂으로 범국가적인 戰爭復旧事業이 추진되었던 시절 건설서비스 需要에 비하여 供給ability이 부족한 때도 있었으나 1970年代 海外建設市場에 進

出・受注함으로써 소위 中東地域의 海外建設黃金市場에의 본격적인 진출로 인하여 우리나라建設서비스 供給能力은 거의 무한대로 신장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중요한 하나의 要素로서의 建設業需要는 다른 經濟活動 수준에 의한 實物需要에 의해서 誘發된다는 점이다.

즉 建設生產이 實物이므로 건설과정에 다른 實物需要를 誘發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實物需要는 건설서비스생산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工場設備등을 구성하는 要素의 종류와 그 크기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다.

建設產業動向을 전망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投資需要가 어떤가를 살펴보아야하고 일반 경제동향과 이에 對應하는 政策基調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87년도 건설업의 성장경을 이루는 一般經濟의 海外動向을 보면 1987년의 세계경제는 '86년보다는 성장이 다소 鈍化되어 경기상승의 호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油價·金利의 下落, 달라 가치의 急落이라는 소위 3低만을 기록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의 첫째는 세계 총생산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 3대국 중 일본만 '86년 2.5%에서 '87년 3.4%로 GNP의 성장이 다소 높은伸張勢를 보일 것으로 展望되었으나 미국·서독은 '86년보다 '87년도의 GNP성장율이 문화되어 미국·서독경제가 예상보다 不振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先進國간의 貿易不均衡, 개발도상국의 外債문제의 惡化, 국제외환시장의 불안, 보호무역주의의 고조등 國際貿易·金融去來의 각국 간 불균형 심화로 인해 세계총생산의 성장율이 '86년 3.25%에 비해 '87년에는 2.4%로 그 성장이 鈍化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表 1 參照)

그러나 1987年度의 한국경제는 그 구조가 안고 있는 脆弱性과 금년 여름에 발생한 심한 労使紛糾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3低의 好機를 잘

〈表 1〉 세계경제전망
(단위 : %)

GNP 성장율	'86	'87	'88
세 계	3.25	2.4	2.6
미 국	2.9	2.4	2.7
일 본	2.5	3.4	3.3
서 독	2.5	1.5	2.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87. 9.

활용한 결과 수출이 계속 신장되어 '86년 339.1 억 \$에서 450억 \$ (추정)로 (대전년비 증가율 32.7%) 늘어난데 힘입어 GNP성장율도 12.6% ('85년도 5.1%, '86년도 12.5% 성장)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86년도 經常收支가 黑字로 전환되더니 1987년에는 前年の 2배에 해당되는 95억 \$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2년간 계속하여 外債를 상환하기에 이르렀고 여기에다 賯蓄이 投資需要를 초과하는 해이기도 하다.

한편 物價도 5년째 안정되어 物價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보아도 좋은 한 해였다.

따라서 1987년은 높은 成長率을 기록하는 그야말로 安定基調下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한 한 해로 평가 받으며 여려모로 韓國經濟運用에 있어 轉換點을 이루는 해로 기록될 것 같다.

다만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反對給付로 起起되고 있는 事案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으로부터의 國內市場開放壓力과 新保護主義의 강화와 더불어 원(won)高등에 따르는 부담들이 가중은 되고 있으나 巨視的 韩國經濟動向은 好調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동향의 이러한 好調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관련해서 보면 1987년도는 대단히 어려웠던 한 해로 기억되어야 할 것 같다.

冒頭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선 國際油價의 下落과 世界景氣의 不振으로 대형건설업체의 건설경기의 흐름을 主導하는 해외건설수주의 激

減을 들 수 있다.

이는 금년도 상반기 수주실적이 지난해의 47%線인 5억 3900만\$에 불과 했으며 9月末 현재에도 海外建設市場 多邊化 추구에도 불구하고 中東產油國의 發注量 격감으로 해외건설면 허소유업체중 27個社만이 9억 3,600만\$를 수주하여 작년대비 56%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여파로 관계당국은 현재 41개 海外建設免許業체를 15個社로 정리하고 26個社는 면허를 회수할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國內建設受注(建設部免許業체에 한함)物量도 1986년도 對比名目上 13.7%增加인 8兆 5,600여억원에 그쳐서 國內外的으로 建設業의 不況이 계속되었다.

업계는 이러한 이유로 그 어느 해보다 감량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타입종의 추가등 기업변신의 노력을 폐한 한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같이 國內建設需要가 微增한 원인은 무엇일까를 분석하여보면 무엇보다도 1986년도 「아시안게임」이 성공리에 끝났고 1988년 「서울올림픽」경기로 인한 特需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 때문에 발생한 建設需注量이 눈에 띠게 줄어 들었고 國際收支黑字基調定着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公共土木事業의 지양과 不動產投機의 억제로 民間建築景氣가 크게 신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土木工事는 全體建設工事의 29.6%에 불과한 2兆 5,400余億원에 그쳐 前年對比名目上 15.1%增加하는데 머물렀으나 建築工事는 67.0%를 占하는 5兆 6,500余億원에 달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건설업中 民間需要의 대중을 이루며 建設需要誘發의 先行指標라고 할 수 있는 建築許可面積은 '87년도中에는 총 4,726萬m² 달하여 전년보다 8.5%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住居用 許可面積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3.9% 성장을 기록, 績体許可面積의 45.8%밖에 차지하지 못한데 비하

여 非住居用建築許可面積은 全體許可面積의 54.2%인 2,563萬m²에 달하여 전년에 비하여 무려 21.9%나 신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87년의 건설업은 輸出景氣回復에 따른 企業設備投資에 의해서 民間部門建設受注增加가 유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88년도 建設景氣 展望

1988年度 우리나라經濟는 '87年度보다 다소 낮은 8.5%의 實質成長을 示顯, 低成長 時代를 맞이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세계 경제동향은 이른바 3低현상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즉 原油價는 배럴당 19달러線으로 등락할 것이며 國際金利도 '87년도의 上승세에서 '88年度 중에도 소폭 上승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며 달라 貨對円貨價値은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한국경제성장에 있어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貿易環境은 선진국의 신보호주의 강화와 對 한국시장 개방요구가 증대되고 원(won)貨切上이 요구되는 한편 부품·소재등 기계류의 對日本輸入依存度가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輸出은 16.0% 늘어난 522億\$, 輸入은 28.0% 증가된 480億~490億\$에 달하여 經常收支黑字規模가 65億\$로 '87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物價上昇率은 都賣物價基準으로 3.5%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輸出의 鈍化, 貨金上昇으로 景氣가 鈍化局面으로 進入할 가능성이 있어 金利引下의 압력이 더욱 거세어져 國內經濟動向이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현상을 보일 우려마저도 있다.

따라서 경제목표달성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뒤따

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建設動向과 밀접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는 固定投資增加率이 88年度에는 '87年度 13.8%보다 3% 鈍化된 10.8%의 增加에 그칠 것으로 KDI는 전망하고 있으며 韓國銀行 역시 10% 내외의 增加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중 設備投資가 줄어든 反面 建設投資는 擴大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88年에는 住居用建物建設이 상당한 폭의 증가세로 伸張될 것이 예상되며 상업용 건물건설도 '87년도보다는 鈍化가 예상되지만 '87년에 비하여 20%정도 늘어나 '87년과는 반전되는 현상을 보일 것 같다.

그러나 工業用建物은 감소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民間部門의 建設은 不振을 나타내 건설업체(건설부면허업체에 한함)들은 이 부문에서 4兆 5,300余億원을 수주하여 '87년도 4兆 3,600余億원보다 불과 1,700여억원의 수주증가에 그칠 것으로 展望된다.

그리고 公共部門에서는 前年보다 약 1兆 2000억원이나 늘어난 5兆 4,000余億원의 受注가 추

정되면서 '88年度 建設部免許建設業체의 新規建設工事契約額은 9兆 9,500余億원에 달해 '87年보다 名目上 15%線 이상의 증가율을 보일것이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볼 때 '87년도보다 그 成長勢가 鈍化된 低成長이 시현될 것으로 보인다. (表 2 參照)

여기에 國제적으로 서비스교역부문의 개방과 관련하여 國內建設市場의 개방압력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일부 실적 있는 中小住宅登録業체에 대한 일정규모이하의 주택시공권부여와 관련된 법 개정, 산림조합이 조경시공권을 요구하는 주장,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허용 및 일정비율 의무하도급제도화 요청 등 여러계층에서 건설업의 고유영역에 대한 침식이 거세게 도전됨으로써 '88年度 建設業界는 '87년도에 이어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88年度 建設景氣는 그 成長勢가 鈍化되고 건설업계는 부침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고 불확실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建設需要에 있어 다소의 好調

(表 2) 88년도 경제 및 건설업전망

(단위 : 10억원)

	86년	87년(잠정)	88년(전망)
국민총생산	59,289.8	66,760.3	72,434.9
실질GNP 성장율	12.5%	12.6%	8.5%
고정투자(80년불변)	19,950.4	22,703.6	25,155.5
상품수출(억\$)	339.1	450.0	522.0
상품수입(억\$)	297.1	381.0	487.0
GNP디플레이터(증가율)	2.3%	2.8%	4.7%
도매물가(증가율)	-2.2%	0.3%	3.5%
건설공사계약액(경상)	7,531.7	8,561.5	9,954.7
실질성장율	13.7%	10.6%	11.1%
공공부문계약액	3,932.9	4,199.0	5,419.9
민간부문계약액	3,598.8	4,362.5	4,534.8
건축부문계약액	4,971.3	5,880.6	6,820.6
토목부문계약액	2,560.4	2,680.9	3,134.1
건설공사기성액(경상)	7,967.1	8,992.8	10,390.1
증가율	7.8%	12.9%	15.5%
건축허가면적(千m ²)	43,543	47,157	53,809

를 보여줄 기미는 앞에서 잠깐 말한바 있는 公共建設需要가 비교적 확대될 것이 확실 하다는 점이다.

이는 내년도 豫算이 상당한 規模로 늘어난데 기인된다.

정부는 '87년 豫算對比 8.7% (本豫算 對比 12.2%) 증가한 總規模 17兆 4,644億원의 '88年 度 豫算을 國會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공고하였다.

내년도 豫算은 健全財政基調를 견지하면서 농어촌·영세민·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庶民住居安定을 위한 住宅投資를 확충하고 道路·上下水道·公害防止등 國民生活 基本需要充足에 적극 지원하며 교육여건의 개선과 교육기회확충등 國民生活의 전반적인 質的水準을 향상시키기 위한 投資를 확대하는 것을 예상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하였는데 건설관련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88年度 新規事業으로는 섬진 강계통광역 상수도사업을 포함 총 1,373 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사업에 158億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表 3 參照)

(表 3) 신규사업 (億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88예산
1. 섬진강계통광역 상수도	88~90	315	20
2. 금강 홍수 예경보시설	88~89	54	11
3. 도시하수도(大田 2次)	"	89	12
4. 도시하수도(全州 2次)	"	75	10
5. 도시하수도(水 原)	88~91	453	24
6. 화순 북 면 하수도	88~89	14	6
7. 미사리 하수도	"	15	11
8. 회야댐 상류 하수도	"	90	30
9. 온산공업기지지원도로	88	5	5
10. 직업훈련대학	88~92	263	29
計		1,373	158

繼續事業으로는 90년도에 완공될 예정인 達芳댐을 비롯한 총 22件에 금년보다 2,307億원이 늘어난 7,798億원이 책정되었다. (表 4 參照)

(表 4) 계속사업 (億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87예산	88예산
1. 금호강계통광역상수도	750	85~90	150	154
2. 달방댐건설	200	86~89	45	74
3. 창원공업지역하수도	774	84~91	112	121
4. 주암댐건설	3,204	83~90	485	747
5. 임하댐건설	2,756	84~90	241	404
6. 남강댐건설	1,785	87~91	5	209
7. 낙동강연안개발	2,527	85~91	179	264
8. 하천협입토지보상	1,865	86~95	79	87
9. 어천공업기지	164	87~89	40	62
10. 일반도로건설	-	-	2,019	2,996
11. ADB 6차차관으로	2,161	87~90	40	452
12. 부산항 (III) 개발	1,693	85~90	204	435
13. 대단위농업개발	6,705	75~93	427	479
14. 냉조제건설	1,514	83~94	236	153
15. 김해공항 확장	286	87~90	5	33
16. 오염하천정화대책	177	87~89	90	72
17. 서울~구로 3복선	990	87~91	28	50
18. 상습침구구가구해소	129	87~89	43	86
19. 광양공업기지	2,584	83~89	580	406
20. 제주종합개발	570	85~91	34	35
21. 조립사업	1,415	79~97	91	92
22. 1·3종어항건설	2,747	-	358	387
計	34,966		5,491	7,798

한편 '88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는 '84년에着手된 수도권 3단계 광역 상수도사업등 총 8건의 공사에 총 1,522억원이 投入되어 마무리될 것이다. (表 5 參照)

(表 5) 완공사업 (億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87예산	88예산
1. 수도권(III) 광역상수도	84~88	1,877	322	380
2. 남강계통광역상수도	85~88	299	68	64
3. 태백권 광역상수도	85~88	369	138	113
4. 전주권종합개발	84~88	763	218	236
5. 협천댐건설	83~88	2,559	60	71
6. 미호천지구개발	77~88	1,044	85	94
7. 호남북선	81~88	1,813	200	240
8. 안산북선전철	86~88	966	350	324
計		9,700	1,441	1,522

그리고 '88년 예산에 반영된 주요 건설관련
역점사업별로 보면

첫째, 농수산개발사업에 있어 농어촌 지역개발기금을 설치, 87년도와 같이 1,250억원을 출자하고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해 地方道 및 郡道 780km 포장을 포함 농지정리, 배수개선, 어항건설등 농수산기반조성에 1,8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둘째, 교육시설확충사업에 있어 총 3,744 억원을 들여 새로운 교실을 짓고 665억원을 들여 노후교실을 改築할 예정이며 213억원을 투자, 대학생기숙사시설을 확충하고 지방대학시설 확충을 위해 73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셋째, 상하도수도사업으로 新規建設事業등에 기포함된 846억원을 비롯하여 지방 상수도사업을 위한 財政融資 540억원등 1,38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넷째, 주택건설사업으로 국민주택 11萬호 건

설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에 총 1,900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으며 그리고 임대주택 6萬戸를 건설하기 위하여 住宅公社에 788억원을 출자할 계획이고

다섯째, 도로건설부문에 있어 총 4,613억 원이 투입되어 일반도로건설, 借款道路建設, 고속도로건설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섯째, 輸出入貨物輸送을 위한 港灣施設과 空港施設擴充에 총 1,95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일곱째, 環境汚染防止事業으로 폐수처리장시설에 총 39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治水 및 다목적댐과 도시 및地域개발사업, 產業基地建設事業, 体育, 文化施設事業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다. *

나의 정직 너의 믿음 사라지는 불신풍조